

# 강진 '불금불파' 대성황... 연탄불고기 파티 핫플 '불야성'

### 2000여 명 인파 방문...10월까지 매주 금·토 파티 열려 얹게 저민 돼지고기에 양념 버무리려 석쇠로 연탄불에 구워

강진군이 지난 26일 병영시장 일원에서 개최한 '병영 불금불파'에 2000여 명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불금불파'는 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라는 뜻으로, 민선 8기 강진군이 새롭게 개발한 관광상품 중 하나다. 연탄불고기로 유명한 병영시장 일원에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펼쳐진다. 이날 행사장 곳곳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과 식당에는 불금불파의 백미 '연탄불고기'를 맛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얹게 저민 돼지고기에 마늘과 간장, 설탕과 고춧가루를 버무리려 석쇠로 연탄불에 구워먹는 방식이다. 관광객들은 불향이 진하게 스며든 살코기에 파채와 잠깐가루, 고추, 마늘을 얹어 먹으며 병영 불고기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에도 파전, 쌀국수, 떡볶이, 닭꼬치, 소시지 등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불고기는 물론, 전통주를 활용한 하이볼과

칵테일,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하벨 맥주&커피를 음미하며 파티를 '제대로' 즐긴 인파들 사이에선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또 진시몬, 목비의 축하공연과 신나는 EDM이 더해진 DJ쇼가 펼쳐지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강진군이 광주·전남 4개 대학교 관광·호텔 관련 학과와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협약으로 MZ 세대의 강진 방문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군수는 "맛의 1번지 강진군의 명성에 걸맞도록 모든 공직자와 지역 주민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했다"면서 "앞으로



지난 26일 강진 병영 불금불파 행사장에서 관광객들이 연탄 돼지불고기 등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강진군청 제공)

병영 불금불파의 생동감과 활력이 강진군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연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농특산물 베트남 수출 '왜조 출발'

### 농특산물 수출 200억 달성 목표...해외시장 개척



장흥군은 지난 24일 베트남 달랏시에 2000만원 규모의 장흥군 농특산물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김, 미역 등 해조류다. 이번 수출은 5월 초 마이 꾸엔 트레이딩(베트남 달랏)과 수출협약을 체결한 후 첫

번째 물량이다. 장흥군(정남진장흥직거래지원센터)은 베트남 달랏시 청년마트에 이미 두 차례 수출한 실적이 있다. 마이 꾸엔 트레이딩은 달랏시 청년마트에 5월 11일 '장흥군 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장흥군 무산김, 표고버섯, 농수산물 가공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장흥군 이번 수출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달러의 장흥군 농특산물을 수출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수출을 통해 장흥군 농특산물 판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길 기대한다"며, "기업 및 농가의 수출품목 일관화로 '장흥군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기 동남아, 유럽 등지로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에서는 이번 물량제 기간(2023. 7. 29. ~ 8. 6.)동안 해외바이어 초청을 통해 우리 농특산물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장흥=김도영기자



## "해남팔경 주광낙조 한눈에" 화원 해안도로 열렸다

### 목포 구등대~양화간 지방도 개통...화원면 해안 일주도로 연결 박차

해남군 목포구(木浦口) 등대에서 양화를 잇는 지방도 803호선이 25일 개통했다. 이번 개통구간은 미개설됐던 2.6km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비 229억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해 왔다. 목포구 등대에서 양화간 도로는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인 시야바다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해안도로로, 180도 전망이 탁 트인 에메랄드빛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가의 낙조 풍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특히 화원면 매월리의 목포구 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축조된 7.2m 높이로 95년간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의 이정표가 되어왔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36.5m의 새 등대가 건립되면서 쌍둥이 등대를 배경으로 서해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넘이 명소로 꼽히고 있다. 해남군은 목포구 등대 일원을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예술의 등대 전시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로 개통과 함께 도로 주변 해안선을 따라 산책로 및 전망대도 설치되어 관광객들이 편안히 쉬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해남군 화원면 일대 도로 교통망 확충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에도 정진호가 되고 있다. 이번 목포구 등대-양화간 도로개통에 이어 화원 후산-장수간 해안도로 개설이 추진중으로 목포구등대-장수리-오시아노 관광단지까지 해안도로 약 23km를 잇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또한 국도 77호선 마지막 연결 구간인 화원-신안 압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공정을 9%로 해저터널 2.73km 굴착을 위한 토공 작업 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건표고버섯 공판 실시

### 관내 34농가 참여, 8.1t 공판...해풍 맞고 자라 전국 최고 품질



진도군이 5월 중순부터 건표고버섯 첫 공판 실시했다. 진도군 산림조합과 전국표고버섯상사연합회 6개 상사가 참여해 열린 이번 공판은 관내 34농가가 재배한 건표고버섯 8.1t(2억 4천만원 상당)의 공판 실적을 냈다.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69농가가

49ha에서 146t을 수확하고 있으며, 해풍을 맞고 자라 맛과 향이 뛰어나 전국 최고 품질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군은 고품질 표고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표고자목, 종균, 운반차량, 하우스 등 총 3억4천여만원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진도군의 대표 임산물인 표고버섯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도표고버섯 산업화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